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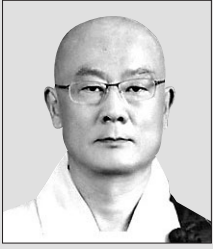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수계법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회장 무문 스님은 10월 26일 경기 파주시 30사단 6028부대에서 장병 152명에게 수계했다.

2014청년한마당 투어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11월 6일 본관 중강당에서 2014 청년 한마당 투어를 개최했다. 청년 한마당 투어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명사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명숙 대표 문체부 장관상 수상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10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의 장예인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원용중 제9대 총무원장 진호 스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용중(종정일공)은 11월 4일 총본산 구로 원용사에서 중앙종회의장 해인)를 열고 총무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부원장 진호 스님을 만장일치로 제9대 원용중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제적인원 10명중 8명 참석 2명 불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총무원장 성관 스님도 참석하여 종회의원에게 진호스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진호 스님은 확정결과 확인 후 종회위원에게 동체대비의 정신과 애중심으로 원용중을 활성화 시키자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FC붓다, 불자축구 동호인 잔치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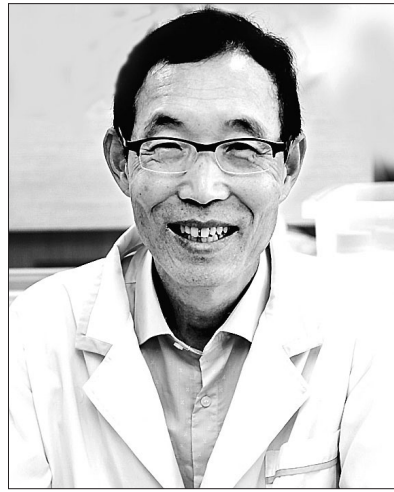


불자 축구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벌이는 잔치 '2014 불자축구동호회 잔치'가 11월 1일 남양주 부평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대회에서는 불교진각중, 봉은사, 광동고등학교 사제팀, FC붓다 4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종립 광동고 사제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봉은사 중무원들로 구성된 FC붓다는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연구수행단체서 포교단체로”

창립 40주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 김종화 이사장



“연구와 수행, 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정진해 가는 새로운 40년을 꾸리겠습니다.” 불연 이기영 교수가 가불자(在家佛子) 중심의 생활불교를 정착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이 40주년을 맞았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불연 이기영 선생은 우리나라 불교학을 현대적 학문으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불교학자”라고 추모하며 “그 원력을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한국불교연구원은 연구원 산하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구도회가 있고 수행처인 광주 유마정사가 있다. 출판부와 교사불자회, 의료봉사를 위한 무량감로회도 그 소속이다.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며 믿음에 깊이를 다진다. 수능 고득점, 공무원 합격 등 기도를 하지 않으며 월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가 중심의 수행·연구단체인 한국불교연구원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불법에 의지하라고 하셨다. 법에만 의지할 뿐”이라며 “이제는 가와 출가구분 없는 수행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불연 이기영 교수 설립 구도회·무량감로회 등 수행봉사 “청년 불교단체와 연대 강화”

이어 김 이사장은 “단체에 오래된 거스러미가 많기에 장단점이 있다”며 “활동력은 있지만 정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불교운동 단체들과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이사장은 1986년 한국불교연구원 법인화하며 창립이사로 일했고 서울 구도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대

학 1학년 때인 1963년 조계사에서 우연히 강연을 듣고 초발심을 일으킨 후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비인후과 개원 후, 불교연구원에 본격적으로 관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조계사에서 무량감로회를 통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산하 단체인 무량감로회의 원칙도 봉사를 이용해서 약자인 환자에게 믿음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연구원은 공동연구·공동수련·공동참여를 기치로 1974년 4월 5일 이기영 박사를 원장으로 창립했다. 초대 원장은 이기영 박사, 2대 원장은 정병조 금강대 총장, 3대 원장은 정호영 충북대 교수, 4대 원장은 이민용 영남대 석좌교수가 역임했다. 5대 원장은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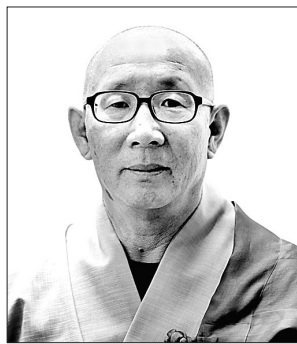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은 11월 2일 광주 유마정사에서 불연 이기영 선생 1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이기영 박사가 설립한 전국 구도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연 이기영 박사(1922~1996)는 동국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불교학을 현대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지식으로 가불교를 일으킨 학자이자 수행자였다.

특히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으며 신행모임인 구도회와 한국불교연구원 등을 설립운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경제 침체 극복, 힘모을 것”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해우 스님



“지역 경제의 침체로 사하구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해 승가와 가의 화합, 봉사의 실천, 기초 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불교연합회 제 10대 회장으로 부산 감천동 약수사 주지 해우 스님이 취임했다. 해우 스님은 10월 17일 약수사에서 개최된 '제2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에서 전 회장 법인 스님으로부터 회기를 전달받고 이와 같이 밝혔다.

해우 스님은 “종파와 소속을 초월해 사하불교가 대화합을 이룰 때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하불교 연합회 회원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하구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고통받는 주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하불교연합회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사하구 불교 연합회의 사업인 무료급식소의 운영과 소외 이웃을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관음종 태허 스님 탐비·부도 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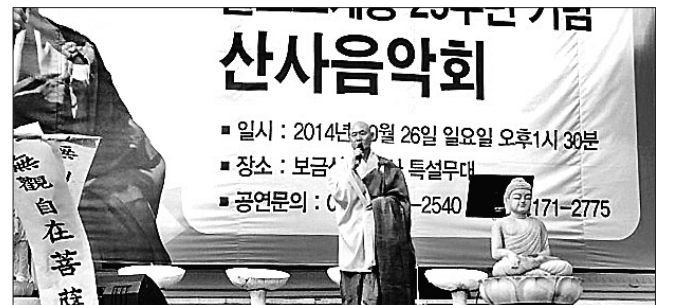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5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11월 1일 순천 선암사에 개산조 태허 스님의 탐비와 부도를 봉안했다. 관음종은 창종을 앞두고 순천 선암사 측과 태허 스님 선양을 위한 부도 및 탐비 봉안을 협의해왔다. 이날 봉안법회에는 관음종 신도 2000여 명이 동참해 태허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법회는 태허문도회(대표 범명)가 주관한 것으로 법회에 앞서 조계산 선암사 역대 조사 대례와 관음합장단 음성공양, 종사영반과 영산 법패시연 등이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봉행사에서 “조사 태허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35년이 흘러 출가본사인 선암사에 부도를 모시게 됐다”며 “태허 스님의 가르침을 옮기게 이어가기 위해 앞장서지”고 말했다.

태허문도회 대표 범명 스님은 “태허 스님의 문손들은 오늘을 계기로 태허 가르침과 사상을 받드는데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i4217@hyunbul.com

불교조계종, 지역 사회 화합에 앞장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해인)은 10월 26일 여주 백화사에서 여주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한 시민노래자랑과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윤원장 해일 스님, 부원장 서봉금산 스님, 비구니 총무 금산 스님, 여주사암연합회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원경희 여주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해인 스님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여주 발전을 기원한다”며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자”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대만불교 순례 봉행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27~31일 4박 5일간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순례는 고승 원조사, 제원사, 불광산사, 신죽 중대선사, 타이베이 자항사, 고궁박물관 순으로 진행됐다. 성지순례에는 육군사관학교 소령 법상 김대연 법사와 해군교육사대위 여철 김영돈 법사 등 위관 군승 14명과 민간인성직자 비구니 스님 2명 등이 참여했으며, 군종교구에서는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선 스님 등 교구 관계자 4명도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군포교 눈길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군포교가 눈길을 끈다. 관음종 구미묘각사(주지 용담)는 10월 25일 인천 해역 방역사령부를 찾아 400여 장병들을 위문했다. 묘각사 청년회는 봉사단체 ‘엄마밥상’을 꾸려 지난 여름부터 군부대에서 손수차린 음식을 보시하고 있다.

정병수 묘각사 청년회장은 “연평도 해병대에서 시작한 엄마밥상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장병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54)442-5716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

우린 3년 전 비구니회장 선거 과정의 치열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출마했던 현 비구니회장(명우스님)은 대중 스님들에게 앞으로 회장이 되면, 비구니(회) 위상 정립과 사회적 역할모델, 비구니회관을 실질적인 비구니 종합도량으로 쇄신하고, 종회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겠다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약에 대한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비사실적인 운영위원장 임명과 비구니 종회의원 비합법적 선출이라는 문제로 비구니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문을 보내었다. 서한문에 나타난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서두에 '전국비구니회가 여법하지 못한 일로 요즘 소란스럽다.'로 시작하여 '연주자가 건반을 잘 두드리면 화음이 되고 그렇게 못하면 불협화음이 된다.'고 하였다. 전국비구니회가 현실의 상황을 소란스러운 일 정도로 대중의 뜻을 무시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을 연주자로, 6천 여 비구니를 건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스스로 비구니 스님들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자임하고 있는 것으로 소임을 사는 임원진들의 사고부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착각해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연주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주를 잘못된 연주자가 바뀌어야 할 것이므로 임원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비구니회에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사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오로지 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제10대 비구니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더 이상 우리는 비구니회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 또 운영위원장의 자격은 물론 잘못된 진행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도 인정할 수 없다. 법을 어기고 선출된 종회의원이 임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전국비구니회가 우리의 사표가 되는 비구니원소스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처사는 비구니들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이 아님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전국비구니회를 잘못 이끌어 온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드시 대중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 것을 촉구한다.

불기2558(2014)년 11월 6일

동학사 승가대학 · 봉녕사 승가대학 · 삼선승가대학 · 청암사 승가대학 동문회 일동